



2026. 7. 10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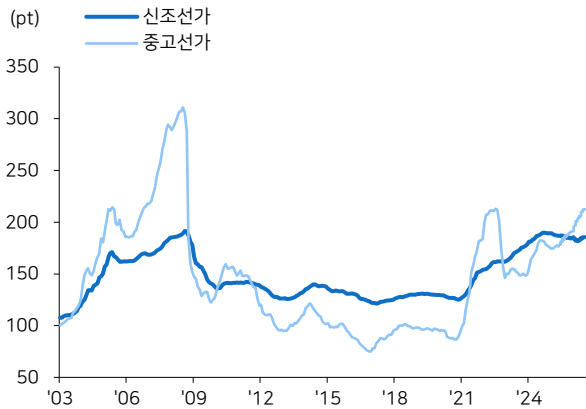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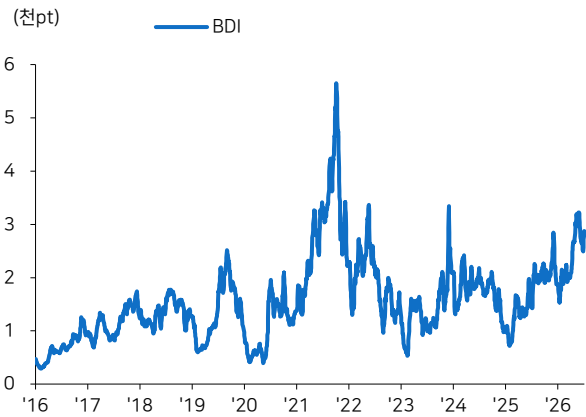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4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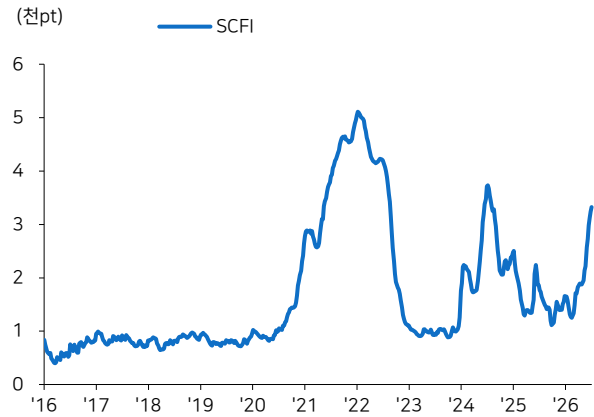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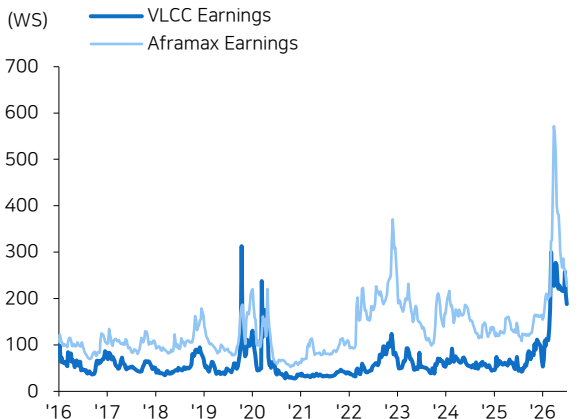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871.0p (-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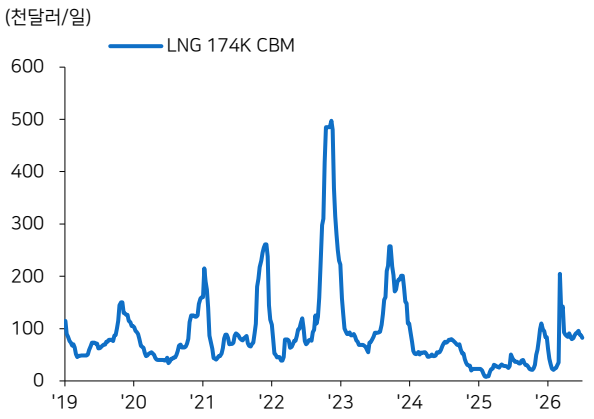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326.9(+87.2 WoW)



VLCC Spot Rate 187.9WS (-20.8p WoW)



LNG Spot 운임 82.5천달러 (-5.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靑 "美 군함, 韓 건조 배제 안하는 듯" (이데일리) <https://zrr.kr/iJbNC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건조 협력 요청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이 보도됨. 이번 발언에 따라 양 정상 간의 대화가 구체적인 실무 논의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해지며, 미국 내 건조 원칙과 한국의 뛰어난 조선 역량 및 양국 간 투자 계획을 조합하여 다양한 협력 모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미국의 현행법상 군함의 해외 건조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계기로 규제 완화나 예외 적용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알려짐.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방한 중인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ADNOC CEO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한화는 정유, 석유화학,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DNOC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만남을 통해 ADNOC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화와의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해짐. 김 부회장과 술탄 알 자베르 CEO는 지난해 12월에도 만남을 가지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고 알려짐.

Asyad makes major product tanker gambit with \$300m six-ship order (TradeWinds) <https://zrr.kr/GslbHd>

오만의 Asyad Shipping이 HD현대중공업에 49,999DWT급 MR 탱커 6척을 발주하며 선대 확장에 나선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 금액은 총 3억 800만 달러 규모로, 해당 선박들은 2029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며 이미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5년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짐. Asyad Shipping은 이번 친환경 고효율 선박 도입을 통해 제품 운반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화오션에 발주한 VLCC 등과 함께 선대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알려짐.

Hanwha Ocean's cyber move with Japanese tech giant comes as rules begin to bite (TradeWinds) <https://zrr.kr/aZws7H>

한화오션이 일본 라쿠텐 그룹 산하 라쿠텐 마리티타임의 선박 사이버보안 통합 솔루션을 도입하며 해당 플랫폼의 첫 상용 고객이 된다고 보도됨. 이번 도입은 국제선급협회(ICS)의 사이버보안 규제(UR E26, E27) 시행에 따라 선박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는 'Security-by-Design' 체계를 구축하고, 조선 전 과정에서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결정으로 전해짐. 라쿠텐 마리티타임 측은 한화오션과의 협력을 통해 조선 및 해운업계가 디지털 전환과 강화된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했으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 조선·해운 시장 전반에서 선박 사이버보안 솔루션 수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알려짐.

한화, 캐나다 조선 전문 훈련센터 설립 파트너십 철수 (더구루) <https://zrr.kr/T38fxS>

한화오션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독일의 TKM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수주를 전제로 추진했던 캐나다 내 조선 전문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산업 협력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는 한화오션이 캐나다 모호크 칼리지 및 온타리오 조선소와 협력해 스마트 조선 기술과 건조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지 핵심 인력을 양성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수주 불발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전해짐. 다만 한화오션이 철수하더라도 모호크 칼리지와 온타리오 조선소 간의 기존 파트너십은 유지될 예정으로 알려짐.

조선해양기자재협회, 글로벌 함정 MRO 수출 협의체 운영 (연합뉴스) <https://zrr.kr/zS3sYs>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이 부산에서 글로벌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공급망 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도됨.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입을 위한 조달 시스템, 사이버 보안 인증(CMMC) 절차 등 관련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협의체를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건의 등 실질적인 수출 지원 활동이 전개될 예정으로 알려짐. KOMEA는 국내 기자재 기업들이 글로벌 함정 MRO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발주처 연계 및 전문 자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